

뷰티산업 주간 동향 보고

발행·작성: 뷰티산업연구소

조사 기간: 2026년 7월 20일 ~ 7월 26일

대상 분야: 미용사·미용서비스산업, 미용교육·자격·직업훈련, 정책·법령·제도, 해외 미용 동향

① 주간 요약

이번 주 국내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직업훈련 성과 확산과 인천 뷰티앤헬스케어쇼의 해외 수출상담 연계가 주요 동향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용 직업훈련은 자격 취득을 넘어 취업·창업·직무전환 성과를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영국 헤어·뷰티 업계가 세제와 사업비용 부담을 핵심 정책 의제로 제기했습니다. 노동집약적 미용서비스업의 세금 부담은 고용, 견습훈련, 가격, 지역상권 유지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② 핵심 뉴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공모, 미용 포함 직업훈련 성과 발굴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업·창업·직무전환 등에 성공한 사례를 수기와 영상으로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용을 포함해 매년 약 70만 명이 제도를 통해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접수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AI·디지털 분야와 전 분야 취업역량 강화 사례를 모집합니다.

분석 미용 직업훈련기관도 자격 취득뿐만 아니라 취업, 창업, 직무전환, 현장문제 해결 등 훈련 후 성과를 사례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행사일 2026년 7월 20일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링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70

2. 인천 뷰티앤헬스케어쇼,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 연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뷰티앤헬스케어쇼가 열렸으며, KOTRA는 7월 23~24일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수출상담회를 운영했습니다. 상담은 사전 매칭 방식으로 진행되고 통역도 지원됐습니다.

사실 전시회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수출상담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됐습니다.

분석 화장품산업 행사이지만 해외 판로, 상담 역량, 영문 제품소개와 후속관리 구조는 미용서비스 기업의 국제화 사업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도·행사일 2026년 7월 23~25일

출처 KOTRA

원문 링크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20753/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cpbizYn=N&dtlBizMntNo=26CN0FE>

3. 영국 미용업계, 노동집약형 개인서비스업 VAT 인하 요구

영국 NHBF는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헤어·뷰티·바버링·에스테틱 업종의 비용 부담을 설명하고 노동집약적 개인서비스에 10%의 인하된 VAT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견습생 고용과 지역상권 유지가 사업체의 생존 여력과 직결된다고 강조

했습니다.

사실 NHBF는 해당 업종이 영국에서 5만 개 이상의 VAT·PAYE 등록 사업체와 17만 8천 명 이상의 고용을 지원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분석 미용서비스업 지원정책은 단순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 고용, 견습훈련, 지역상권 유지라는 산업적 역할과 연결해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행사일 2026년 7월 20일

출처 National Hair & Beauty Federation

원문 링크 <https://www.nhbf.co.uk/news/a-public-letter-from-the-hair-and-beauty-sector/>

4. 영국 일부 사업세 감면에서 미용실 제외, 업계 형평성 논란

영국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한 사업세 감면 발표에서 미용실, 헤어숍, 바버숍과 에스테틱 클리닉이 제외됐다고 보도됐습니다. 현지 업계는 고정비와 인건비 부담이 큰 개인서비스업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일부 지역사회·접객 업종에 한정됐고 미용 관련 업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분석 미용업은 사업장과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이므로 세제와 고정비 정책의 제외가 가격, 고용, 교육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도·행사일 2026년 7월 24일경

출처 Professional Beauty

원문 링크 <https://professionalbeauty.co.uk/salons-excluded-andy-burnham-business-rates-cut>

③ 분야별 동향

가. 미용사·미용서비스산업

해외에서는 영국 업계가 VAT와 사업세 부담을 제기하며 미용서비스업의 고용 및 지역경제 기여를 정책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 미용교육·자격·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공모는 미용을 포함한 전 분야 직업훈련의 성과를 취업·창업·이직과 AI·디지털 활용 관점에서 발굴합니다.

다. 정책·법령·제도

해외에서는 영국의 미용업계가 노동집약적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VAT 인하와 사업세 개편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라. 해외 미용 동향

영국 사례에서는 살롱과 바버숍이 단순 소비 공간이 아니라 고용, 견습훈련, 지역상권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서비스 인프라라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제지원 여부가 인력양성과 사업체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④ 종합 시사점

1. 미용 직업훈련기관은 자격 취득률 외에 취업, 창업, 직무전환, 현장문제 해결 사례를 성과지표로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외 수출상담회 참여를 준비하는 기업은 영문 소개자료, 사전 매칭, 상담기록과 후속관리 역량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3. 미용서비스업 정책은 소상공인 지원만이 아니라 고용, 견습훈련, 지역상권 유지라는 산업적 효과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세제와 고정비 부담은 미용업체의 가격 인상, 직원 고용 축소, 교육투자 감소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산업단체 차원의 근거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⑤ 출처

- 고용노동부 (2026 년 7 월 20 일),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공모, 미용 포함 직업훈련 성과 발굴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70
- KOTRA (2026 년 7 월 23~25 일), 인천 뷰티앤헬스케어쇼,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 연계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20753/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cpbizYn=N&dtlBizMntNo=26CN0FE>
- National Hair & Beauty Federation (2026 년 7 월 20 일), 영국 미용업계, 노동집약형 개인서비스업 VAT 인하 요구
<https://www.nhbf.co.uk/news/a-public-letter-from-the-hair-and-beauty-sector/>
- Professional Beauty (2026 년 7 월 24 일경), 영국 일부 사업세 감면에서 미용실 제외, 업계 형평성 논란
<https://professionalbeauty.co.uk/salons-excluded-andy-burnham-business-rates-cut>

⑥ 배포 및 저작권 안내

본 보고서는 수신을 희망하는 미용 분야 종사자에게 비영리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무료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공개된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의 주요 사실을 간략히 재서술하고, 뷰티산업연구소의 독자적 분석을 덧붙여 작성하였습니다. 기사 원문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와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상세 내용은 제시된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기사 요약 및 출처 정보는 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